

공동체 소식

▣ 위령성월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부모, 친지, 은인)을 위해 미사 봉헌하시고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 24일(일)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다해의 마지막 주간으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또한 추수감사미사로 함께 봉헌됩니다. 일년동안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헌금 봉헌해 주십시오. 교회력으로 새해(가해)를 준비하며 대청소 있습니다.

▣ 평일미사 변경안내

- 목요일 오전10시 미사가 없겠습니다.
- 화요일, 수요일 저녁미사만 있습니다.

▣ 교무금 안내

- 매월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 추가로 한 달분이상 교무금을 감사헌금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 감사헌금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신앙생활봉헌서 제출 안내

- 신앙생활봉헌서 작성하신 후 11월 17일(일)부터 11월 24일(일)까지 미사 봉헌때나 본당신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구역/반에서도 공지해 주십시오.

▣ 낙태 반대 서명운동

- 본당입구 게시판에 준비된 카드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주시면 모아서 발송합니다.

▣ 평협회 안내

- 17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11월 2차헌금/캠페인 안내

- 17일(일) Collection for the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군 사목을 위한 대교구 모금
- 24일(일)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CCHD) 인간개발을 위한 가톨릭 캠페인
- One Faith Campaign 가정별로 약정서 작성하시어 대교구로 24일(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구역모임

- 3구역 22일(금) 저녁7시30분 문석찬 요셉 가정
- 4구역 2반 22일(금) 저녁7시 김지섭 토마스a. 가정
- 4구역 1반 23일(토) 오후4시30분 박민 바실리오 가정

▣ 매일미사 신청 안내(\$60)

- 매일미사 책 1년치 신청받습니다. 전례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성당(한인/미국)에서 주일 미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91	217	166	88
차 주	73	219	174	77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세실리아)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차 주	김명은(안젤라)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훈(로베르또) 김지안(요한)
차 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정원(안젤라) 김정빈(바오로)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예레미아), 김동술(요한)
차 주	감영진(라파엘), 차상욱(펠릭스)

▣ 애찬 봉사자

금 주	2조: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차 주	그리스도왕 대축일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24일 전신사 대청소 합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을 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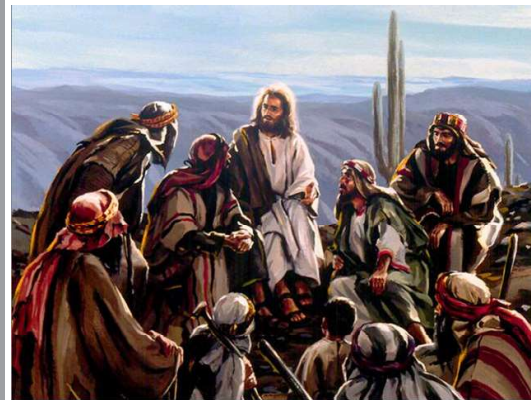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신 하느님께서, 아드님의 살아 있는 성전에 온 인류를 모으십니다. 변하는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넘어 하느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굳게 믿으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림 묵상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루카 21, 10-13

제 1 독서 : 말라키 예언서 3,19-20

<너희에게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3,7-12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21,5-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생명의 말씀

새로 태어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언제인지, 또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두렵고 무섭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나 전염병,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이 종말을 설명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종말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현재의 세상을 고치거나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믿음에 바탕을 둥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들에게 종말은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종말과 함께 희망을 약속합니다.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희망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그리고 그때에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세상의 끝을 말하지만 새로운 것, 새로운 세상이 태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종말의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생명의 탄생, 여자의 출산을 염두에 둥니다. 어머니는 새 생명을 낳기 위해 진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이 세상에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자연의 현상은 성경에서 종말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 전에 어머니의 진통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렇기에 종말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때로 생각합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의 고통, 박해의 고난, 하늘의 표징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나 분열. 이런 모든 것은 진통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진통의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은 새롭게 되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모든 어머니들이 고통의 시간을 넘어 새 생명의 탄생에 기뻐하는 것처럼 종말 역시 고통을 넘어서는,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연중시기가 끝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듣는 종말에 관한 말씀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종말은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인은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늘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끝을 넘어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죽음을 넘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새롭게 주어질 생명에 희망을 두고

인내란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까?
단순히 참아내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인내는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희망입니다.
이렇게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디어 내면
희망하는 그날이 오리라 마음 먹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 21,19)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거룩한 얼굴

금속공예 공방을 운영하던 2015년 가을의 일입니다. 제품 디자인 샘플을 제게 의뢰하셨던 사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토리노 聖 수의(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아마포) 사본 전시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봉사 중인데, 수의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을 신자들이 소장할 수 있도록 '기적의 패'처럼 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의뢰해 받아 본 샘플이 지도신부님과 준비위원회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며 도움을 청하셨지만, 제 능력 밖의 일이라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쓰이고 아마포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 패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조언을 구하시기에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 저는 여전히 사순 중에 머물렀습니다. 원본 디자인 컨펌 자리에서 "이제 다 되었다"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저는 오늘 비로소 부활을 맞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완성되어 세상에 나온 '거룩한 얼굴' 패는 '토리노의 聖 수의 사본 전시회'에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묵상 안에서 힘을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가 지은 죄의 못 자국들이 고스란히 저를 찌르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 못 자국을 마주할 때마다 그때는 보지 못했던 혹은 외면했던 죄의 순간이 되살아나, 고통받으셨을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 나를 돌아보고 머물며 십자가 앞에서 통회 없었던, 못 자국들이 나를 살리신 자리였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깨닫는 것 또한 은총이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시간뿐 아니라 저의 시련도 간직하며, 주님의 거룩한 얼굴의 빛 속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잊지 않고 청합니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시편 4,7)

나혜선 요셉피나 | 성가 가수, 금속공예가

대체 그런 결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샘플 패와 이미지를 받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6개월 남짓 헤아릴 수 없는 수정을 거쳐 가며 그 패를 조각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수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을 한 조각의 패로 표현한다는 것은 제 얕은 신앙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깊어지면서 제가 지은 죄를 외면하는 것이 주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 신부님께서 표현해달라 조언하셨던 '병사들에게 맞아서 부여오른 뺨'은 나의 손찌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은 저와 주님이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나고 봄이 왔으며,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으

복음묵상

